

# 한솔제지 장항공장 20일간 ‘올스톱’… “수백억대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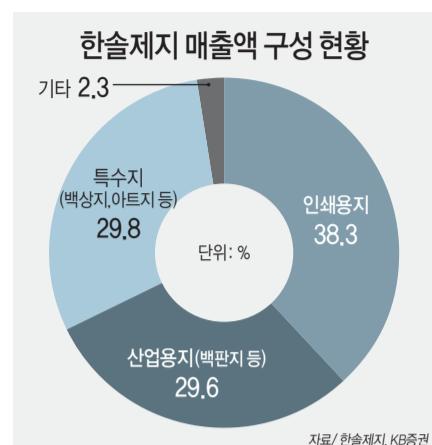
‘근로자 사망사고’ 전면 가동중단  
한솔제지 전체 매출의 41% 담당  
사측,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예정  
지차체도 재가동 건의 등 힘 보태  
당국 “조사중… 해제시점 미지수”

한솔제지 충남 장항공장이 멈춘지 2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가동이 언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해당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 조사 등을 위해 사고 이튿날부터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내린 후 22일 현재까지 공장의 기계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한솔제지측은 국내외 감열지 생산능력 1위인 장항공장의 가동중단 사태가 길어지며 이날 기준으로 4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장항공장 가동중단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목표주가를 내리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솔제지는 이번 사고로 책임자 등이 사법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지난해 단일공장 기준으로 74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형 사업장이다. 지난해 한솔제지 전체 매출액의 41.5%를 장항공장이 담당했다.

한솔제지는 장항 외에도 대전, 천안, 신탄진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연면적 기준 5만4758평으로 공장

4곳 중에서도 장항이 가장 크다. 장항공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21.9시간씩 가동하며 감열지와 인쇄용지를 생산해왔다.

특히 감열지는 국내 전체 소비량 대부분을 한솔제지가 장항공장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특수약품을 처리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 등이 나타나는 종이인 감열지는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ATM용지로 사용된다. 또 특수감열지는 로또복권이나 각종 라벨, 티켓 등에 쓰인다.

한솔제지의 감열지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도 상당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사망사고로 시작된 장항공장 가동중단 조치가 언제 풀릴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고용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한솔제지의 장항공장내 사망사고가 가동중단조치와 내용상 연관성은 있지만 직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재해 원인을 제공한 장항공장의 위험요소가 개선작업 등을 통해

해소돼야 가동중단조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솔제지측은 노동정의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안전작업계획서를 금명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뿐 아니라 향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설립, 시행하기 위해서다.

제출 내용에 대해 관할청이 심위위원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합격 판정’을 내려야 가동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다만 가동이 결정된다고 해도 기계가 실제 돌아가기까지 적어도 사흘 가량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안전개선 작업 등 관련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공장이 정상가

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자체도 장항공장의 가동중단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힘을 보태고 있다. 충남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는 지역 의회 관계자들과 지난 19일 장항공장을 방문,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천군 노박래 군수는 지난 16일 고용부 보령지청을 방문해 가동중단 해제를 건의했다.

KB증권은 당초 2만3100원이었던 한솔제지의 목표주가를 1만99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장윤수 연구원은 “1분기 중 계절적 비용이 증가한데 이어 장항공장 가동중단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이익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2분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가동중단 사태 장기화로 한솔제지뿐 아니라 공장 생산근로자, 협력업체도 임금·대금 등에서 타격을 입어 관련 문제 해결도 숙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소벤처 중심으로 경제체질 개선해야”

### 박영선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상생·공존 실현하는 주요 플랫폼”  
지역별 혁신센터장 애로사항 청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생과 공존’을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다양한 상생·공존 모델을 통해 성장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뜻에서다. 상생과 공존은 박 장관이 취임식에서도 강조했던 중기부의 정책 철학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에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기부 정책 철학의 근간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라며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19개 혁신센터장 및 파트너 대기업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날 간담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혁신 네트워크 활동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 19개 혁신센터장 및 파트너 대기업 등이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방성·자율성·다양성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지역 혁신 허브로 개편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취임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들과 처음 간담회를 연 광주혁신센터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인라이트 벤처스, 전남대,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통해 수소분야 특화센터로 수소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간담회를 연 배경에 대해 “수소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자율주행차와의 관계에 대해 중점으

로 보고 싶었다”며 “미래 자동차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중기부의 정책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혁신센터장들로부터 인재 유출과 투자 미흡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3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삼성전자와의 연계성에 장점이 있는 경북과 구미, 대구 지역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삼성전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광주혁신센터가 담당하는 수소 관련 스타트업의 제품을 들려보고, 광주혁신센터와 현대차의 지원으로 수소연료전지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한 코멘텍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승호 기자

## 동양, 영동화력발전 2호기 우드펠릿설비 263억 수주

저장사일로 등 각종 부대시설 전담

유진그룹 계열사인 동양이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를 친환경 발전연료인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플랜트 사업을 구축한다. 동양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263억원 규모의 ‘영동화력 2호기 우드펠릿 연료취급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1979년 준공한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방침에 따라 석탄연료에서 친환경 발전연료인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료전환공사가 마무리되면 초미세먼지가 기존 대비 51.2%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은 이 프로젝트에서 우드펠릿 반입동 및 이송시설을 비롯해 1만톤 규모의 저장사일로(Silo) 2기, 토건, 기계, 전기, 제어, 소방공사 시설을 포함한 각종 부대시설의 구축을 맡게 된다. 이번 공사는 이달 착공해 1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동양의 영동화력발전소 플랜트 관련 사업 수주는 이번이 네 번째다.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내 3호 저탄장 바이오매스 저장시설을 비롯해 영동 회처리수 재순환 설비 설치공사를 완공한 바 있다. 또한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바이오매스 사일로 및 부대시설 토건공사와 같은 발전소의 바이오매스 사일로 설치조건부 구매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3호 저탄장 바이오매스 저장시설 공사에서는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등 플랜트 업계에서 동양의 기술과 시공 역량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동양은 지난 1월에는 삼천포발전본부 5·6호기 환경설비 설치공사를 비롯해 2월에는 현대오일뱅크 해상출하설비 공사 수주에 연달아 성공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 공격적 영업으로 북미·유럽서 ‘존재감’



1분기 매출 시장성장比 3배 ↑  
올 8400억 달성 목표 ‘청신호’

두산인프라코어가 북미와 유럽 등 선진 건설장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올 1분기 북미, 유럽 등에서 약 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동기 보다 14% 성장한 것으로 북미, 유럽 시장 규모가 5% 성장한 것에 비하면 시장 성장 대비 약 3배 성장을 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같은 성과가 북미, 유럽 시장의 경기 회복에 발맞춰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딜러 확대,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실행, 서비스 대응력 향상 등 영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유럽에서도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신규 딜러 사업 안정화 및 현장 영업조직 권한 확대를 통해 고객 대응력을 높였다.

이달 초에는 미국 시애틀에 부품공급 센터를 신규 오픈하며 부품 공급역량을

강화했다. 애틀란타와 마이애미에 이어 미국 내 세 번째 부품공급센터를 오픈해 신속한 부품공급으로 고객의 장비 가동률 및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 마케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세계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디 오픈’을 2010년부터 후원해 왔으며, 미국 메이저리그를 3년째 후원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선진 건설장비 시장에서 올해 목표인 매출 8400억 원을 무난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